‘아파트값 급등’ 봉선동 불법거래 막는다

최근 외지인 투자 세력 증가 한달 사이 최대 2억 호가
남구, 현장 지도·점검반 편성…연말까지 단속활동 강화

광주 남구가 다량의 외지인 매수가 확인된 봉선동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외지인 갭 투자로 봉선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현지 점검을 벌인다.

지난 7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외지인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인 광주와 부산, 김포 등지로 이동하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광주시 사법경찰관 등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 지도·점검반 6개조를 편성,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봉선동에서 영업 중인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봉선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10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가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로 집계됐다.

현장 점검은 실거래 신고 내역과 거래계약서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및 사본 보관 상태, 중개 보조원 대리계약 여부, 자격증 불법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한 상황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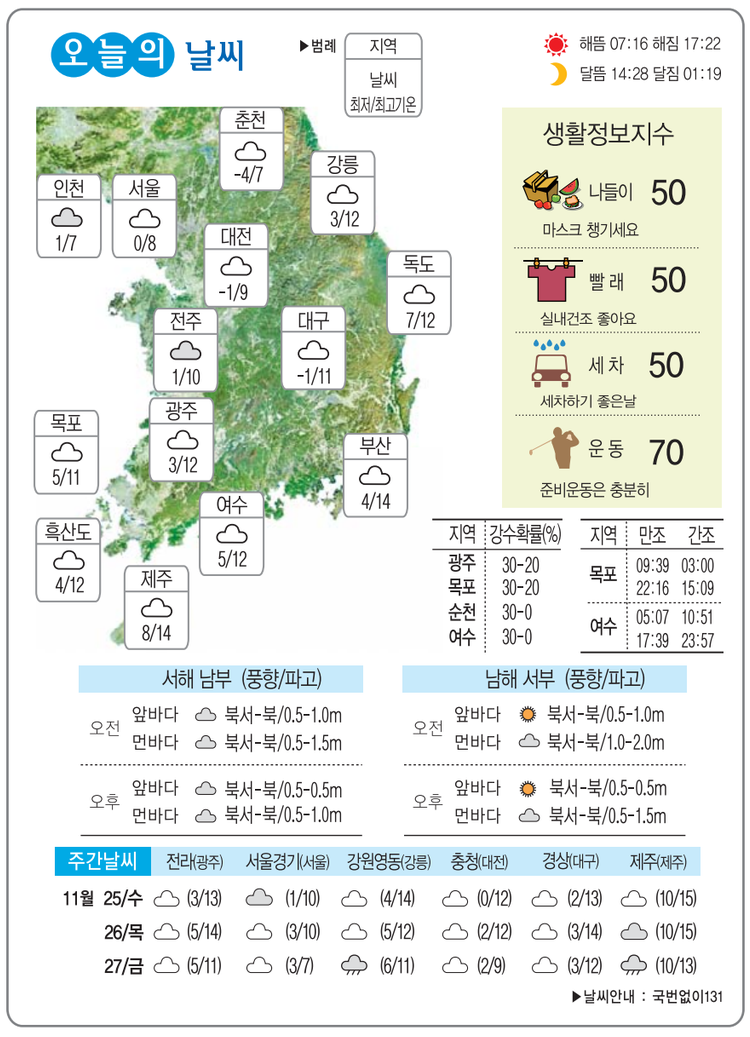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지난 9월1일부터 최근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는 총 378건이었으며, 그중 전남·북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도 12건, 경남도 6건, 경북도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도 3건으로 총 135건이 외지인 투자로 확인됐다.

외지인들은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을 피해 광주에서 수요가 많은 봉선동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고 호가를 올린 뒤 다시 되팔아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 등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 관계자는 “외지인 부동산 실거래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점검이나 소명자료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올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뒤 봉선동을 포함해 관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치매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시상
서구, 코로나 재확산 비대면 진행

광주 서구는 지난 19일 치매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2020년 치매인식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 비대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미술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품이 수여됐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치매안심센터 사은품이 증정됐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순수하게 잘 표현했다”며 “수상작들은 향후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서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추모의 손편지와 하얀꽃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펜스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손편지와 하얀색 꽃이 걸려있다. 이곳은 지난 17일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2살 여아가 숨지는 등 3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날 관내 운암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추모에 동참하고자 펜스에 국화를 내걸었다. /김애리 기자

올 겨울, 작년보다 춥고 기온 변동 크다

올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춥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23일 ‘겨울철(2020년 12월-2021년 2월) 장기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겨울철은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12월은 평년(1-2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내년 1-2월은 평년(1월 영하 1.6도-영하 0.4도, 2월 0.4-1.8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겨울보다 추운 날이 많겠고, 겨울철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월별로 보면 12월 전반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갈 때가 있고, 후반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1월은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의 변화가 크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명진 기자

남구, 코로나 확진·전파 공무원에 책임 묻는다

재택근무 강화…대유행 모임·회식 금지 등 공직사회 솔선수범

광주 남구는 불요불급한 모임 및 회식 자리에 참가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전파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복무지침으로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날 오전 코로나19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 부서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구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각 부서별로 근무 인원의 15%를 재택근무 인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강화는 광주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되며,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이 2단계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변할 때마다 재택근무자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공직사회가 솔선 수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모임과 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에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모임 행사 회식 관련 특별지침’을 내림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모임 및 회식 자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지역사회에 전파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내릴 계획이다. /김동수기자

북구, 내년도 예산 8천91억원 편성

광주 북구는 23일 2021년 예산안을 8천91억원으로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7천102억원보다 13.9% 증가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4.2% 증가한 8천2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8.9% 감소한 65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 등 구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5천503억원(68.6%, 669억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291억원(3.6%, 206억원 증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21억원(2.8%), 환경 분야 208억원(2.6%), 보건 분야 190억원(2.4%) 등이다. /김동수기자